



3면

"마한의 본향 전북 역사문화특별법에 포함"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음 9월 11일) 제264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김승수 전주시장과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26일 전주송천 수소충전소에서 열린 전주 제1호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 전주시, 수소시대... 첫 충전소 구축

시·수소에너지네트워크, 송천동에 제1호 준공  
용량 1일 250kg · 시간당 5대씩, 하루 최대 60대

국내 첫 양산형 수소 시내버스 시동을 건 전주시가 첫 번째 수소충전소를 송천동에 구축하면서 수소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주시와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하이넷(주))(사장 유종수)은 26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홍정기 환경부 차관 우범기 전라북도 정부부지사,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정복철 전북지 방환경청장, 문정훈 현대자동차 부사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제1호 수소충전소인 '전주송천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전주송천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환경부의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보조사업' 지원을 받아 국비 15억원과 하이넷 15억원 등 총 30억원이 투입돼 송천동 금성장폐식당 인근에 조성됐다. 이 충전소는 총 2083㎡ 부지에 354㎡ 규모의 기계실과 충전기를 갖췄다. 충전용량은 1일 250kg으로, 시간 당

약 5대씩, 하루에 최대 60대의 수소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다. 수소충전소 운영을 맡은 하이넷은 당장 27일부터 충전소를 가동하게 된다. 충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능하다. 시는 제1호 수소충전소 구축이 그간 수소 충전을 위해 완주 봉동읍의 충전소를 다리는 불편을 겪었던 수소차 운전자들의 충전 편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 시내버스 49대와 수소승용차 800대를 보급할 계획인 가운데 10월에 조성 예정인 삼천동 충전소를 비롯해 총 4곳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200여 대의 수소차를 보급했다. 지난 7월에는 현대자동차의 양산형 수소 시내버스 운영을 전국 최초로 시

작했다. 시는 수소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수소저장용기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며, 한옥마을 수소 홍보관 구축, 한옥마을 내 셔틀버스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전주송천 수소충전소 개소를 통해 앞으로 전주가 모범적인 수소도시로 성장할 길이라며, 전라북도 또한 전국 제일의 수소경제 도시, 수소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북형 수소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종수 하이넷 사장은 "전주에 제1호 하이넷 전주송천 수소충전소 준공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전주시는 수소기반 도시 생태계 구축과 그 성과모델을 확산시켜 우리나라 수소경제를 이끌어 가는 선두주자로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친환경 수소버스의 운행과 함께 수소충전소까지 구축되면서 전주가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도도시가 될 것"이라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그린 정책'을 통해 경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위

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서울 입맛 사로잡은 '전북 먹거리'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4개 자치구 41억원 실적

전북도가 지난 2016년 서울시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서울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도내 먹거리를 공급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자원을 확대하면서 41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산지 지자체는 서울시 자치구와 1:1 매칭을 통해 어린아침,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583개소(6만3,305명)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로컬푸드(581톤) 조달을 통해 41억원이라는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 도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완주군과 강동구의 매칭을 시작으로 전주시-서대문구(2018), 군산시-은평구(2018), 남원시-동대문구(2019) 간 도농상생 MOU를 체결하고 공공급식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식재료를 기획생산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산지 지자체 4곳(완주군,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은 공공급

식센터를 설치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도농 간 신뢰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공급식 조달체계는 도내 생산 농가가 신선한 식재료를 재배해 전북도 산지 지자체 공공급식센터로 공급하고, 산지 지자체는 식재료 생산을 지원 및 관리해 서울시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북도는 산지 지자체가 서울시 공공급식에 식재료 출하 전 실시하는 320성분의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공공급식 공급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 116건, 2018년 353건, 2019년 485건, 2020년에는 545건의 검사를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농가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직거래 선순환 유통구조를 확립해 도내산 식재료 공급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직거래 공공조달 체계 구축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 전북도 '2021년 녹색자금 공모' 9개소 선정

복지시설 나눔숲 5곳 · 무장애 나눔길 4곳... 230여억원 확보

전북도는 정부에서 주관한 2021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9개소가 선정돼 22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 전주시 등 5개 시군이 선정돼 7억5,300만원을,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익산시 등 4개 시군이 선정되며 15억1,500만원을 지원받는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사회 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생활 환경 개선과 이들의 정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숲과 컴퓨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전주시 효성원, 군산시

신광포자원, 남원시 포도원, 김제시 효병원, 부안군 동근마을보금자리가 선정됐다. 또 다른 지원사업인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하도록 숲길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익산시 인화공원,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고창군 문수산백목, 부안군 줄포만벚꽃생태공원이 선정됐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해 지난 2017년부터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유호상기자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녹색자금 236억 원을 지원받아 총 99개소에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했으며, 올해도 복지시설 나눔숲 4개소(전주, 익산, 완주, 남원)와 무장애 나눔길 1개소(부안)를 조성하고 있다. 전북도 김인태 환경복지국장은 "전북도에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올해 9억3,000만원 대비 140% 증가된 2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공모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 숲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